

신규학졸자의 경제활동상태 및 변화

김복순*

I. 머리말

청년층(15~29세)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에는 오히려 청년층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한 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40%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이들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국제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다 2013년에 증가세로 전환함으로써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층 신규학졸자들은 이들의 특성상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구직활동의 결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청년층 전체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실업률은 30%를 넘고 있다. 이렇듯 청년층 전체와 신규학졸자 간 고용지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년층 일자리, 청년 실업 등 청년층 고용관련 이슈는 오래 전부터 주요한 사회적 현안이다. 본고에서는 청년층 고용률이 30%대로 내려앉은 시점에서 노동시장으로 생애 첫 진입을 시도하는 청년층 신규학졸자들의 경제활동상태와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이 학교 졸업 후 얻은 생애 첫 일자리의 특성과 질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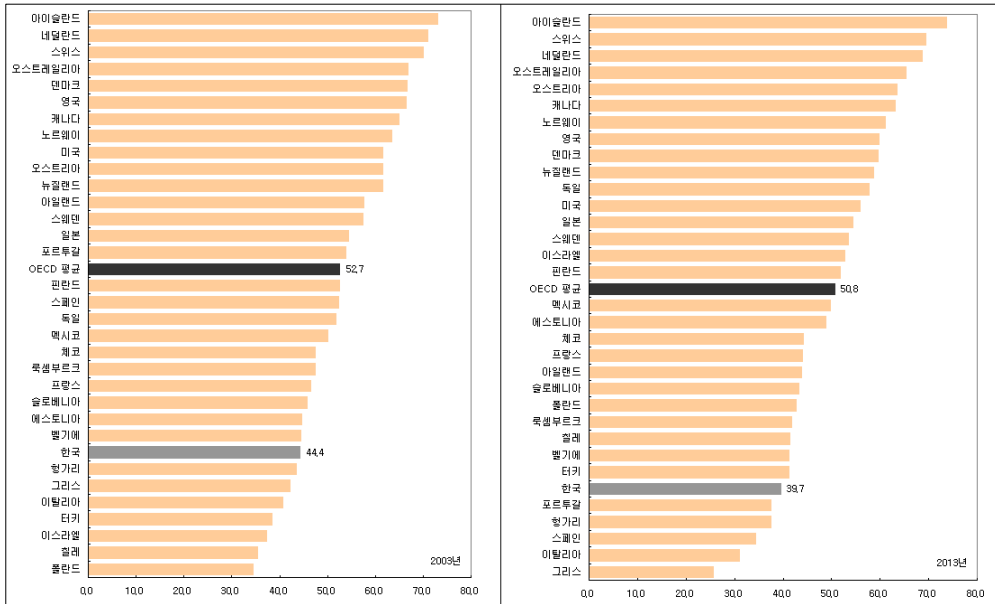
1. 청년층(15~29세) 고용 현황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10년 전 2003년 44.4%에서 4.7%p 하락한 39.7%를 기록하였다. 이 수치는 OECD 회원국 평균(50.8%)과도 상당한 격차를 보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닥친 몇 차례 경제위기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eesaram@kli.re.kr).

[그림 1] OECD 회원국의 청년층(15~29세) 고용률(2003년, 2013년)

(단위 : %)



자료 : OECD.

[표 1] 청년층(15~29세) 고용지표

(단위 : %)

		1995	1998	2000	2003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고용률	60.6	56.4	56.7	58.5	59.3	59.8	59.5	58.6	58.7	59.1	59.4	59.5	
	경활률	61.9	60.6	60.6	61.0	61.4	62.0	61.4	60.7	60.8	60.9	61.1	61.3	
	실업률	2.1	7.0	6.3	4.1	3.4	3.5	3.0	3.4	3.4	3.0	2.8	2.8	
	비경활	38.1	39.4	39.4	39.0	38.6	38.0	38.6	39.3	39.2	39.1	38.9	38.7	
소계	고용률	46.4	40.6	40.9	43.4	44.4	45.1	41.6	40.5	40.3	40.5	40.4	39.7	
	경활률	48.6	46.2	45.9	47.0	48.1	49.0	44.6	43.8	43.5	43.4	43.3	42.8	
	실업률	4.6	12.2	10.9	7.6	7.7	7.9	6.8	7.6	7.3	6.9	6.7	7.2	
	비경활	51.4	53.8	54.1	53.0	51.9	51.0	55.4	56.2	56.5	56.6	56.7	57.2	
15~29세	20~24세	고용률	59.3	50.0	50.6	52.0	51.8	52.5	45.5	44.6	44.3	43.5	44.5	43.2
		경활률	63.1	58.6	58.0	57.3	57.1	58.0	49.9	48.9	48.5	47.5	48.4	47.1
	실업률	6.0	14.8	12.8	9.3	9.2	9.4	8.8	8.9	8.7	8.5	8.0	8.2	
	비경활	36.9	41.4	42.0	42.6	42.9	42.0	50.1	51.1	51.5	52.5	51.6	52.9	
25~29세	고용률	67.0	62.9	62.6	66.1	67.5	68.5	68.5	67.5	68.2	69.7	69.2	68.8	
	경활률	69.1	69.4	68.4	70.1	71.8	73.0	72.6	72.4	72.8	74.0	73.6	73.6	
	실업률	3.0	9.3	8.5	5.7	6.1	6.2	5.6	6.7	6.4	5.8	5.9	6.5	
	비경활	30.9	30.6	31.6	29.9	28.2	27.0	27.4	27.6	27.2	26.0	26.4	26.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최근 청년층 고용률은 2004년 45.1%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40%로 하락했다가 2013년에는 39.7%까지 하락하였다.

한편 청년층 실업률은 2013년 8.0%로 전년대비 0.5%p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OECD 회원국 중 일본, 독일 등 몇몇 나라와 함께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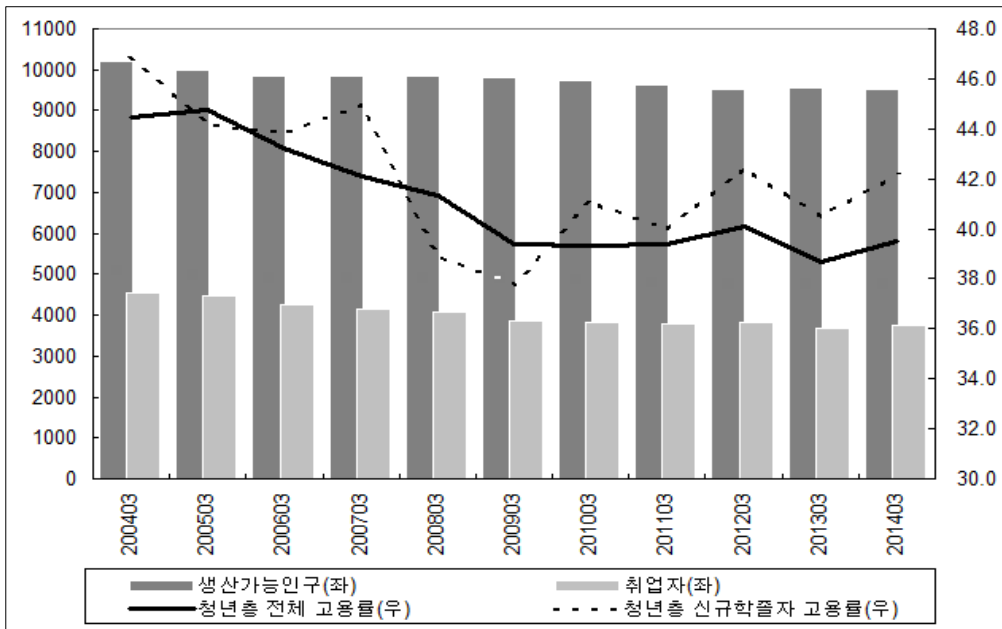
II. 청년층(15~29세) 신규학졸자의 고용과 일자리 질

1. 청년층(15~29세) 신규학졸자의 경제활동상태

청년층 전체와 신규학졸자의 고용지표를 비교해 보면 두 노동시장이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림 2]와 [그림 3]에 나타난 신규학졸자의 고용률과 실업률의 추이는 등락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청년층 전체가 장기적으로 하락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신규학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국제금융위기 이

[그림 2] 청년층(15~29세) 생산가능인구·취업자·고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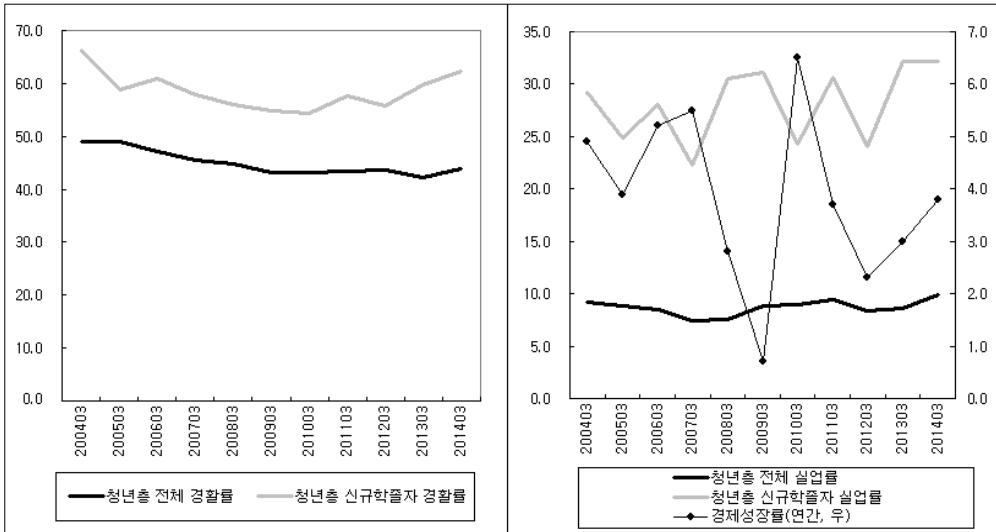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주: 매년 3월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3] 청년층(15~29세) 전체와 신규학졸자의 경황률·실업률 추이

(단위: %)



주: 매년 3월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3월 청년층 신규학졸자는 전년동월대비 52천 명 증가한 486천 명이다. 이들의 고용률은 42.2%로 전년동월대비 개선되었으나 2004년의 46.9%에 크게 밀리고 있다. 특히 2013년 신규학졸자는 근래 10여 년 이내 가장 적은 434천 명이었으며, 고용률 또한 40.5%로 2012년에 비해 1.9%p 하락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청년층 신규학졸자의 고용률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청년층 전체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14년 3월 청년층 신규학졸자의 실업률은 32.2%로 전체 청년실업률 9.9%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 전체 실업률이 10% 이하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반면 신규학졸자의 실업률은 분석기간 동안 22.2~32.2%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동은 경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높은 실업률과 더불어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신규학졸자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진 것을 의미한다.

신규학졸자의 고용지표들이 전체 청년층과 구분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신규학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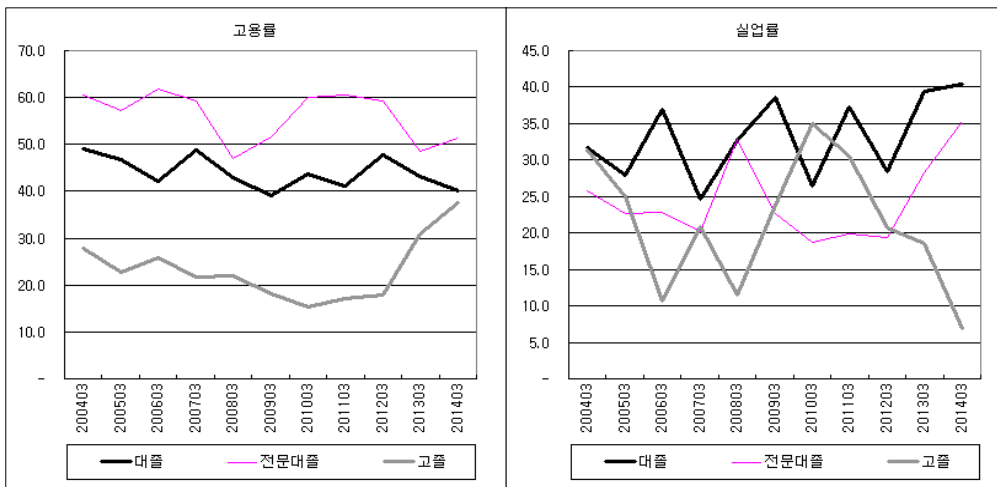
1) 본고에서 청년층 신규학졸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3월 기준)에서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졸업연도와 조사연도가 일치하는 자를 의미하며, 신규학졸자의 첫 일자리는 조사연도 3월 기준 취업상태에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이하 신규학졸자 분석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3월)」와 「경제활동인구조사-3월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들의 학력별 고용지표 또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졸 신규학졸자의 고용률은 2012년 47.7%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문대졸 신규학졸자의 고용률은 2012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3월 현재 대졸 신규학졸자의 실업률은 40.4%로 전문대졸 학력자와 더불어 증가 추세인 반면, 고졸 신규학졸자의 실업률은 한 자릿수(6.9%)를 기록하는 등 2010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청년층(15~29세) 신규학졸자의 학력별 고용률·실업률 추이

(단위 : %)



주: 매년 3월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렇다면 신규학졸자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를 졸업하고 얻은 첫 일자리는 어떤 형태일까?. 청년층 대졸 신규학졸자는 2014년 3월 204천 명 중 82천 명, 전문대졸 신규학졸자는 123천 명 중 64천 명, 고졸 신규학졸자는 147천 명 중 55천 명이 졸업하고 한 달 이내에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신규학졸자의 학력별 고용지표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 학력별로 나누어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겠다.

먼저 상용직 비중을 보면, 대졸 신규학졸자의 상용직 비중은 소폭 하락한 반면 전문대졸·고졸 신규학력자의 상용직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학졸자의 거의 대부분이 임시근로를 하고 있어 임시일용직 비중은 상용직과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 고졸 신규학졸자의 고용률은 2013년에 이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장기적인 흐름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데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여러 요인(고교졸업생의 취업률 상승세, 2013년 4월 기준 마이스터고 1기(2010년 21개교) 졸업생의 높은 취업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어 향후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표 2〉 청년층(15~29세) 신규학졸자의 학력별·특성별 고용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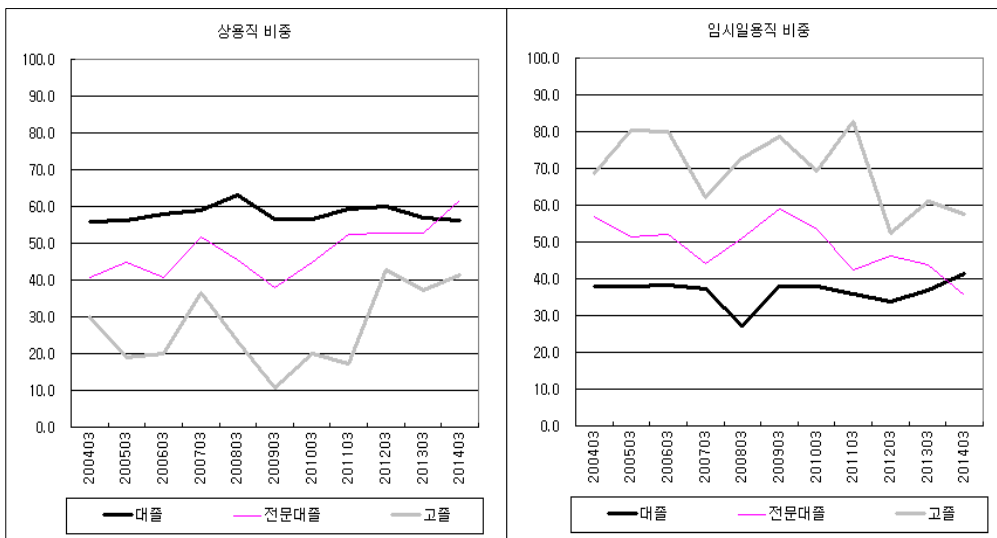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대졸					전문대졸				
		2004	2008	2009	2013	2014	2004	2008	2009	2013	2014
신규학졸자 전체		109	97	80	72	82	109	60	74	59	64
지위	상용직	55.9	63.1	56.5	56.8	56.2	40.9	45.6	37.7	52.8	61.7
	임시일용직	38.0	27.3	38.1	36.9	41.4	57.0	51.1	59.1	43.8	35.8
성	남성	46.5	49.4	49.3	52.6	43.9	40.8	40.4	29.2	27.6	51.8
	여성	53.5	50.6	50.7	47.2	56.1	59.2	59.6	70.8	72.4	48.4
산업	제조업	21.2	14.7	9.6	9.7	8.8	19.5	12.8	10.0	8.7	17.7
	서비스업	72.2	78.8	90.4	85.7	87.7	74.2	81.9	85.0	91.5	79.6
	도소매업	11.1	4.0	7.2	4.4	13.9	20.3	10.3	15.8	9.4	15.9
	음식숙박업	2.7	3.5	6.6	5.1	10.5	10.6	5.5	18.2	23.5	15.2
	교육서비스업	23.3	19.5	25.5	14.6	12.5	8.5	9.7	9.6	7.3	10.4
	보건업 등	8.2	9.2	7.8	17.5	19.2	4.4	17.0	17.2	26.9	18.4
규모	중소규모 사업체	79.4	78.0	85.1	82.5	86.7	93.3	95.3	86.2	95.7	94.9
	대규모 사업체	20.6	22.0	14.9	17.4	13.3	6.7	4.7	13.8	4.4	5.1

주: 매년 3월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5〉 청년층(15~29세) 신규학졸자의 학력별 상용직·임시일용직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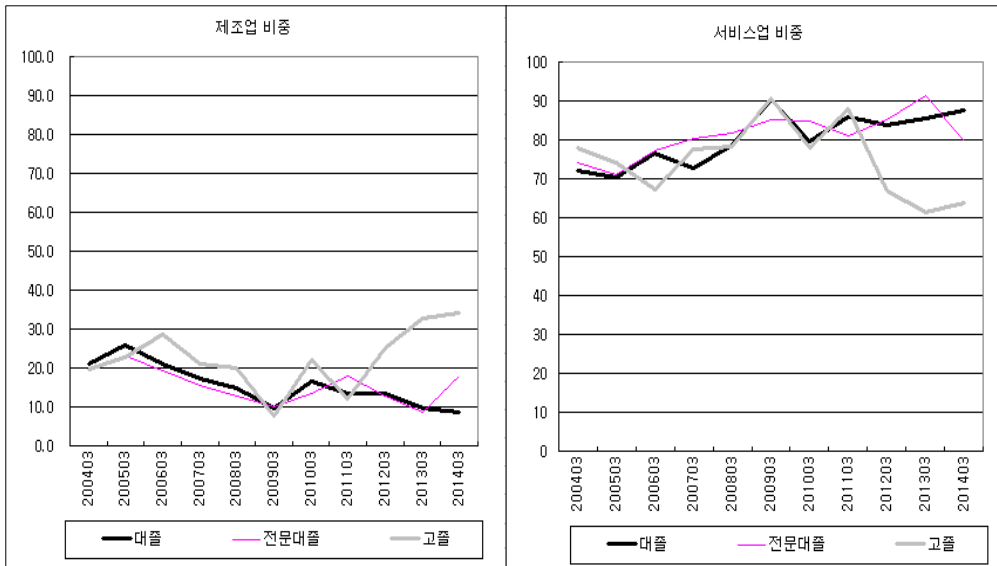
주: 매년 3월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산업별로 보면 대졸·전문대졸 신규학졸자 모두 제조업 비중이 장기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대졸 신규학졸자의 제조업 비중이 2014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신규학졸자의 경우 2011년 이후 제조업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30%를 넘고 있다.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2014년 3월 70.6%)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신규학졸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신규학졸자의 서비스업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을 세분하여 보면, 도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학력과 무관하게 증가한 반면,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비중 변화는 학력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대졸 신규학졸자의 취업자 중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 대졸 신규학졸자 4명 중 1명이 이들 업종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나타났다.³⁾

[그림 6] 청년층(15~29세) 신규학졸자의 산업별 비중 추이

(단위: %)



주: 매년 3월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신규학졸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로 취업되는 가운데 대졸 신규학졸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비중이 2004년 79.4%에서 2014년 86.7%로 증가하였다.⁴⁾ 이는 노동공급 측면에서 좀 더 나은 일자리인 대규모 사업체로의 진입을 기다리기

3) 2014년 상반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고용은 전년동분기대비 258천 명 증가함으로써 이 두 산업은 2014년 상반기 고용증가세를 견인하는 주요 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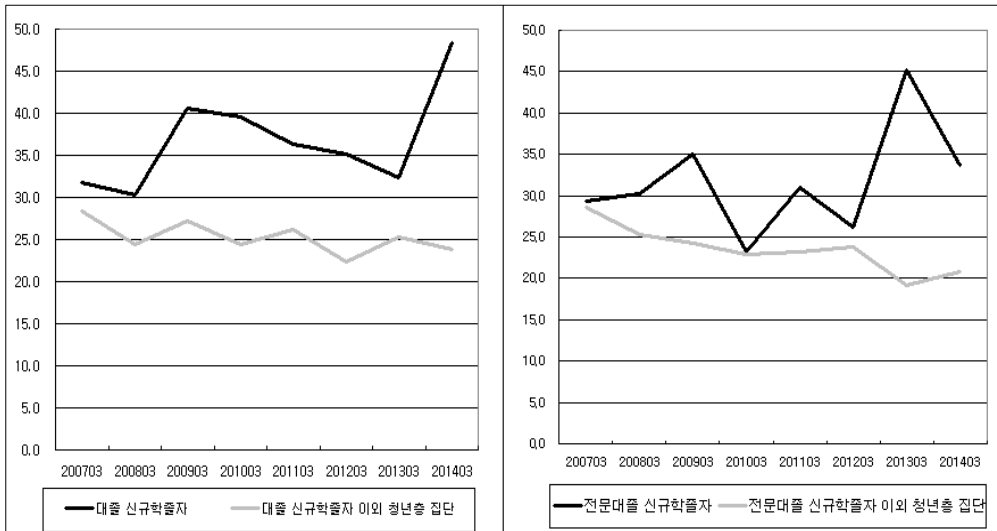
보다는 중소기업으로의 진입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청년층(15~29세) 신규학졸자의 첫 일자리의 질

이제는 청년층 신규학졸자들이 학교 졸업 후 취업한 첫 일자리의 질을 살펴보자. 먼저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신규학졸자의 학교졸업 후 첫 일자리의 비정규직 비중이 신규학졸자 이외 청년층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졸 신규학졸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2014년 48.4%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시일용직 비중이 늘고,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전문대졸 신규학졸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대졸 신규학졸자 이외 청년층 집단에 비해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청년층(15~29세) 비정규직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3월)」 원자료, 각 연도.

- 4) 2014년 3월 청년층에서 대규모 사업체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5천 명 증가했지만 신규채용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사업체의 취업자 수는 34천 명 증가하였고 신규채용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전년동월대비 44천 명 증가).

다음으로 신규학졸자들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을 고용형태별로 비교해 보면, 대졸 신규학졸자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82.9%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신규학졸자의 중소기업 사업체로의 취업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업체 규모 간 임금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학졸자의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사업체 규모 간 일자리의 질 격차를 좁히려는 정책적 노력 또한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3〉 청년층(15~29세) 신규학졸자의 학력별·특성별 상대적 임금수준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졸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86.6	78.4	65.1	57.0	80.7	74.6	79.7	71.9
	남성 대비 여성	75.8	71.4	71.5	69.1	75.9	78.2	69.0	82.9
	대규모 대비 중소기업	80.3	69.8	73.0	84.4	68.6	75.1	63.8	63.3
전문대졸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88.2	86.5	78.0	88.5	79.9	76.3	87.9	82.2
	남성 대비 여성	79.9	80.7	86.7	93.1	88.2	95.0	94.7	79.8
	대규모 대비 중소기업	95.5	116.7	81.4	81.2	88.0	98.9	72.5	96.7

주: 임금은 3개월 평균임금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3월)』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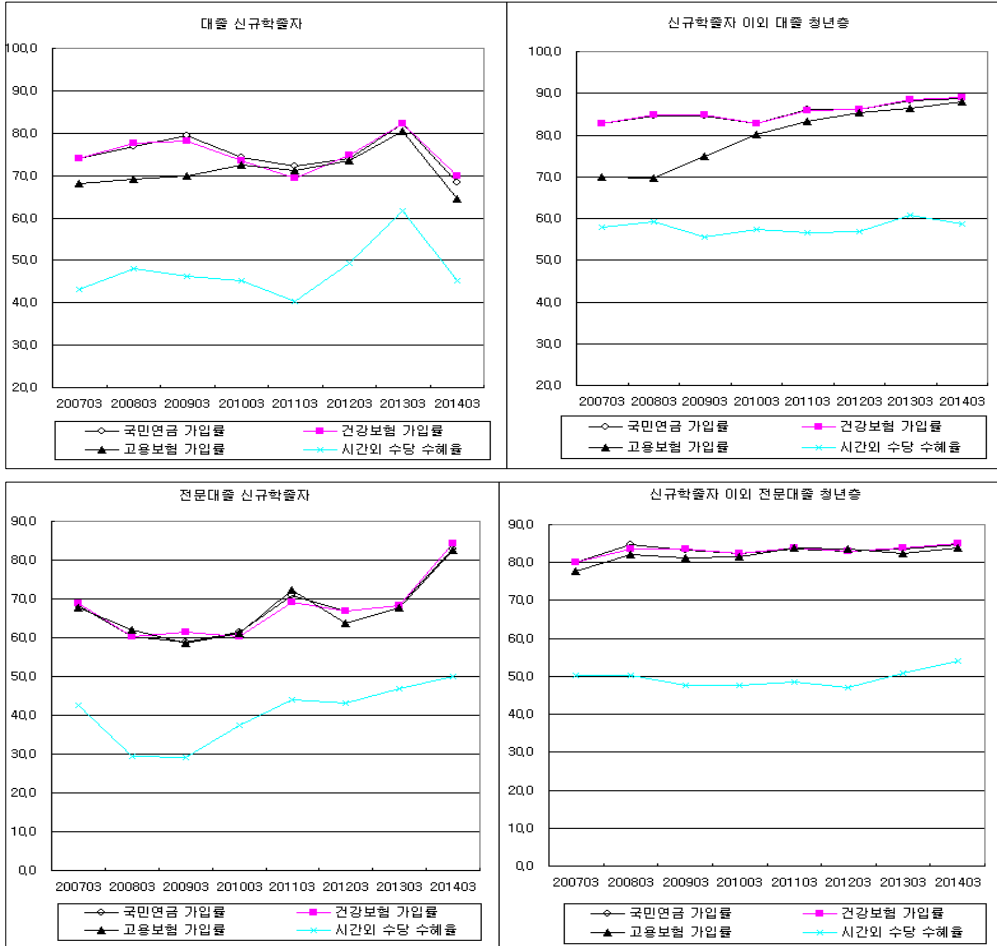
한편 청년층 신규학졸자들의 일자리의 질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가입률과 사회복지 관련 지표를 가지고 살펴본 결과, 신규학졸자 이외 청년층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졸 신규학졸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13년에 비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보험가입률은 2007년 이후 가장 저조하였다. 이는 2014년 대졸 신규학졸자의 비정규직 비중(특히 시간제 근로)이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졸 신규학졸자 이외 청년층 집단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다소 주춤했으나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문대졸 신규학졸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14년 전년동월대비 크게 상승하였고, 시간외수당 수혜율 또한 상승추세이지만 비교 집단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청년층(15~29세) 사회보험 가입률 등 비교(대졸 신규학졸자·대졸 신규학졸자 이외/전문대졸 신규학졸자·전문대졸 신규학졸자 이외)

(단위 : %)



주 : 2010년부터 고용보험가입률은 고용보험 비가입대상인 공무원, 교사, 별정우체국 직원을 분모에서 제외한 수치임.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을 구분하는 경우 직장가입만을 가입자로 간주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3월)」 원자료, 각 연도.

Ⅲ. 청년층(15~29세) 신규학졸자 중 미취업자

2014년 3월 청년층 신규학졸자 486천 명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실업자는 98천 명으로 신규학졸자의 실업률은 32.2%에 달한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는 183천 명으로 신규학졸자의 37.7%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층 신규학졸자 중 미취업자(=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는 281천 명이며, 이 중 취업애로계층은 175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특히 대졸 신규학졸자의 취업애로계층 비중은 최근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14년 3월 현재 대졸 신규학졸자 10명 중 약 6명이 취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 대졸 신규학졸자의 취업애로계층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청년층(15~29세)의 학력별 취업애로계층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졸 청년층 신규 학졸자	실업(A)	51	36	48	28	47	50	31	58	41	47	55
	비경활	63	69	65	62	82	75	80	81	72	48	67
	쉬었음(B)	8	10	3	3	10	14	8	13	12	6	10
	취업준비(C)	38	46	53	54	57	51	60	61	51	38	48
	취업애로계층(D)	96	92	105	85	114	116	98	131	103	91	114
	(비중)	43.3	46.2	53.2	48.0	50.8	56.4	50.1	55.3	48.2	54.8	55.8
전문대졸 청년층 신규 학졸자	실업(A)	38	28	24	20	29	22	19	20	22	23	35
	비경활	34	43	26	34	38	48	36	33	41	39	26
	쉬었음(B)	12	12	5	8	6	11	5	9	15	8	5
	취업준비(C)	11	18	16	14	25	28	23	9	23	26	15
	취업애로계층(D)	61	58	45	42	60	61	47	39	60	57	55
	(비중)	33.7	34.8	34.1	32.1	46.8	42.3	34.1	28.3	38.8	47.2	44.2

주: 비중은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애로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임. 취업애로계층(D)=A+B+C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IV. 맺음말

신규학졸자의 고용지표는 청년층 전체뿐만 아니라 신규학졸자의 학력별로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규학졸자의 특성상 구직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은 반면 이들의 상당수가 실업을 경험하고 있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곧 신규학졸자의 실업문제라고 할 만큼 대졸 신규학졸자의 실업률은 40%(2014년 3월 40.4%)를 넘고 있다.

5) 본고에서 취업애로계층은 공식적인 실업자는 물론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활동상태가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취업준비’와 ‘쉬었음’인 자를 의미한다.

신규학졸자들의 첫 일자리 특성뿐만 아니라 첫 일자리의 질 또한 학력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신규학졸자 이외 청년층 집단에 비해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신규학졸자의 미취업자 중에서 취업 애로계층이 증가한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졸 신규학졸자의 상용직 비중이 소폭 하락세라는 점, 대졸 신규학졸자의 중소기업로 사업체로의 진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체 규모간 임금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결과는 사업체 규모 간 일자리의 질 격차를 좁히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KLI**

<참고문헌>

금재호(2012), 「청년취업난의 악화(Ⅱ) : 일자리 질은 개선되었는가?」, 『노동리뷰』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2011), 「신규 대졸자의 주요 집단별 고용 특성」, 『노동리뷰』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부표 1〉 청년층(15~29세) 전체와 신규학졸자의 학력별 고용지표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청년층 전체	고용률	44.5	44.8	43.2	42.1	41.3	39.4	39.3	39.4	40.1	38.7	39.5	
	경활률	48.9	49.1	47.2	45.5	44.7	43.2	43.2	43.5	43.7	42.3	43.8	
	실업률	9.1	8.8	8.5	7.5	7.6	8.8	9.0	9.5	8.3	8.6	9.9	
	비경활	51.1	50.9	52.8	54.5	55.3	56.8	56.8	56.5	56.3	57.7	56.2	
신규 학졸자	전체	고용률	46.9	44.2	43.8	44.9	38.9	37.8	41.1	40.0	42.4	40.5	42.2
		경활률	66.2	58.8	60.9	57.8	56.0	54.8	54.3	57.6	55.8	59.8	62.3
		실업률	29.2	24.8	28.1	22.2	30.5	31.1	24.3	30.6	24.0	32.2	32.2
		비경활	33.7	41.2	39.1	42.2	44.0	45.2	45.7	42.4	44.2	40.2	37.7
	대졸	고용률	49.0	46.9	42.1	48.9	42.9	39.1	43.6	41.2	47.7	43.3	40.1
		경활률	71.7	65.1	66.8	64.8	63.7	63.6	59.4	65.7	66.6	71.4	67.3
		실업률	31.7	28.0	36.9	24.6	32.7	38.6	26.5	37.3	28.4	39.4	40.4
		비경활	28.3	34.9	33.2	35.2	36.3	36.4	40.6	34.3	33.4	28.6	32.7
	전문 대졸	고용률	60.5	57.2	61.8	59.4	47.1	51.5	60.1	60.7	59.3	48.5	51.2
		경활률	81.5	74.0	80.2	74.5	70.1	66.6	74.0	75.7	73.5	67.5	79.1
		실업률	25.8	22.7	22.9	20.3	32.8	22.7	18.8	19.8	19.3	28.2	35.3
		비경활	18.6	25.9	19.9	25.6	29.9	33.4	26.0	24.4	26.5	32.5	20.8
	고졸	고용률	27.9	22.7	25.7	21.7	22.0	18.1	15.4	17.1	18.0	30.9	37.5
		경활률	40.6	30.3	28.8	27.4	24.9	23.8	23.8	24.6	22.7	37.9	40.3
		실업률	31.3	25.1	10.7	20.7	11.5	23.9	35.1	30.5	20.8	18.6	6.9
		비경활	59.4	69.7	71.2	72.6	75.1	76.3	76.2	75.4	77.4	62.1	59.7

주: 매년 3월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